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젊어서 시작해야

(시편 119:9-16)

You must start when you're young

(psalms 119:9-16)

솔로몬 왕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봄이요 봉우리며 출발이고 기회의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King Solomon once said, "Remember your Creator when you are young." The time of youth is the spring, when life is budding and starting. It is the best chance of a lifetime. What is a youth's mind filled with? The mind was meant to be a storehouse for God's word. Therefore, above all, a youth's mind must be filled with the Lord's word.

1.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까

1. At what point should we fill our life with the Lord's word?

'청년'은 육체적 나이를 말하기보다 '이른 시간'을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word, 'youth,' suggests an early time of life rather than merely physical age. We see that Daniel as a young boy, Jesus Christ who atoned for man's sin, John Calvin, Martin Luther, and the missionary Livingston, all lived and held the Lord's word in their heart when they were young. Although youth can have endless knowledge, they need a good teacher due to their lack of experience and capability. Inside the Bible, there is greater wisdom than ten thousand teachers of the world. Therefore, Christians have to keep the Lord's word in their heart from the time of their youth and learn to make good use of it.

소년 다니엘, 인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신 예수님, 요한 칼빈(John Calvin), 마틴 루터(Martin Luther), 리빙스톤(Livingston)선교사, 이들은 모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들입니다.

청년들 앞에는 무한한 지식이 있지만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스승과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일만 스승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익히고 활용해야 합니다.

2.무엇을 해야 하나

2. What do we have to do?

시인은 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말씀만 지키겠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음성을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 율례를 더했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부활 진리를 뺐습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저것을 제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The psalmist prays that by seeking Him with all his heart, and keeping His word, the Lord will not let him stray from His commands. If we want to keep the Lord's word well, we should discriminate the Lord's word from Satan's voice very carefully. We must never add or take away anything from the Lord's word. Pharisees added their own law to the Lord's word and the Sadducees reduced the truth of the resurrection. Liberalism took out one thing or another from the Lord's word in accordance with their scientific reasoning. All of these men were arrogant. We must not turn from God's word to the right or to the left. We must only live according to the God's word.

3.왜 그렇게 해야 하나

3. Why do we have to do like that?

젊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 범되지 않기 위함입니다(11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The reason why youth should learn, practise, and love God's word is in order that we might not sin against God (v. 11). If there is no word from God, then our sins will cause us to fall. Accordingly, we cannot keep living a holy life. We must always meditate on His word and keep His word in our mind, in order that we might rejoice in His word. His word gives us wisdom and understanding, honor and grace, and moreover, His Spirit.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명예와 은총을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을 주십니다.

My beloved congrega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Christians should remember and rejoice in all of God's laws. Everyday, we should meditate on His decrees and not forget His word.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어깨에 조국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배우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Young people! Upon your shoulders are the homeland and the future of the church. By embracing God's word in your heart, I earnestly pray that you will learn Hi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금주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

교육1국 7/19(주)-21(화) 서울교회
고등부 7/23(목)-25(토) 느티나무 수련원

이번 주에도 우리교회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가 계속된다. 이번 주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의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21일(화)까지 3일간 우리교회당에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23일(목)-25일(토)까지 충북 단양의 느티나무 수련원에서 각각 열린다.

“섬겨야 합니다”를 주제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서울필그림남성합창단 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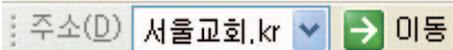
- 32명 정예단원으로 출발 -

서울교회는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의 비전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중 이번에는 ‘서울필그림 남성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서울필그림남성합창단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근거로 32명의 정예단원을 선발하여 앞으로 무지개 어린이합창단과 미리암 여성합창단과 더불어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는 중요한 선교사역을 담당할 큰 포부를 가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전체모임을 갖고 연습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필그림남성합창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서울교회 한글도메인 등록

서울교회 멀티미디어단(단장: 오정수장로)은 영어주소 입력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보다 손쉽게 본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한글도메인(서울교회.kr / 서울교회.com / 서울교회.org)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글 인터넷 주소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시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비영어권 사용자와 기존 이용자들의 방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교회.kr'만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공과를 통해 성경을 배우며 친구들과의 교제도 할 수 있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는 나 혼자만 참여하여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내 친구도 초청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며 친구를 초청하기 바란다.

기도한다.

서울필그림남성합창단 창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 임상현 장로 · 지휘: 임훈규 장로
- 반주: 오신옥, 홍혜란
- 관현악 반주: 임범창외 수 명
- 단원: 한상은 장석남 황 광 김영준 임상현 이갑진 류충기 최형열 김금준 김혜연 김영희 홍일성 오승민 서경학 노창훈 오명걸 최광혁 험시바 단원 15명

8월 한 달간 다락방 방학

영적 재충전의 기회로

계속되는 무더위로 가정 개방과 심방이 어려운 8월 한 달간 우리교회는 다락방 모임을 잠시 쉰다. 성도들은 이 한 달 동안 영적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가족과 함께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는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이 기간동안 다락방장들은 성도들의 성수주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전화심방을 통해 다락방 가족들을 돌보며 교회에 책임있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중 모임 수 있는 다락방은 모이기에 힘쓰도록 한다.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

<1독>

- (4교구) 유명석 권사
- (5교구) 장낙희 권사
- (8교구) 김대호 장로
- (9교구) 이남성 집사 이운유 성도
- (11교구) 이옥선 집사

대치역에 우산 기증한다

오늘(7/19) 오후2시 대치역에서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홍성주 장로)는 오늘 오후2시 우리교회 자매기관인 대치역(역장 홍건주)에 우산 200개를 기증한다.

이 우산들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계절에 우산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시 역으로 반납하는 제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호산나대학 21명 문서실무사 자격증 취득

6월 20일 호산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1명이 한국정보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4급 자격증 시험에 전원 합격하였다.

<자격증 취득자 명단>

- 1학년 : 노은수, 홍창환, 조연희, 진훈, 박종관
- 2학년 : 박정훈, 최지훈, 한철규, 김현승, 이혜미, 문장호
- 3학년 : 오유미, 박용선, 심서현
- 4학년 : 한지희, 박건영, 이한수, 안재모
- 방과후 대안학교: 정도담, 이유준, 임진호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사랑은 더하고 섬김은 나누어요

황성일 성도 (사랑부 교사)

올 여름 교회학교 중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11 - 12일에 베델하우스와 교회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첫째 날 학생들은 야외로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즐거워 얼굴 가득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시원한 강이 보이고 푸르름이 가득한 잔디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어찌나 신이 나서 찬양과 율동을 하는지... 그들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습니다. 지체가 불편하고 통제가 어려운 친구들이라 외부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모처럼만에 베델하우스에서 가진 성경학교는 사랑부의 큰 축제였습니다.

문정훈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일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



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출연한 연극 ‘무지개 물고기’도 감동스러웠습니다. 갖가지 물고기 종류를 알록달록 장식한 소품으로 직접 분장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더불어 행복해진다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또 원예치료인 ‘사랑의 토끼어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작은 화분을 꾸미며 아이들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했습

니다.

사실 전일까지 쏟아지는 장맛비와 낮은 기온으로 모처럼 계획한 야외에서의 성경학교가 무산 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장마 한 가운데서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은 역시 멋진 분이십니다.

둘째 날은 교회에서 하는데 밖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부채 만들기, 세족식, 색칠하기 등 모든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잘 따라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섬김을 받기보다 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틀간의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부를 위해 늘 기도해주시며 물질로 후원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사랑부 교사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한칼빈 탄생500주년 기념

한국 장로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



장로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지도자 초청 간담회가 지난 17일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26개 교단,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요한 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의 실제적인 피날레였다.

그간 칼빈기념사업이 일회적 행사로 끝나는 것을 우려하여 칼빈 기념 사업회는 장로교 연합과 일치가 앞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하여 이번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부 경건회에서 김의환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국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기념사업 대표 회장 이종윤 목사님은 지도자 간담회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시며 교계와 신학교의 추천을 받아 각 교단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소위 Opinion Maker들을 엄선하여 초청하였으며 한국 장로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하였다.

간담회는 참석자 중 4명이 차례로 토의 발제를 하며 시작되었다. 발제자는 이종윤 목사님, 박경수 교수님(장로회신학대학교), 정일웅 교수님(총신대학교), 이승구 교수님(합동신대원대학교)으로 각각 다른 교단신학교의 교수가 토의 내용을 발제하여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냈다.



첫 번째 토의 발제를 하신 이종윤 목사님 “끼여진 몸, 부패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시도는 단지 오늘날의 과제만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더 다루어야 할

신학적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장로교 정체성을 확립함에 있어 그 진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하시며 모든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분열의 원죄를 회개하고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영적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적 제안으로 3단계계를 제시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장로교연합을 이루자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번 경주에서 있었던 통합측 장로 수련회에서 장로가 연합하여야 장로교가 연합할 터이니 내년에는 장로교 연합 장로 수련회를 하자고 제안하므로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수 교수님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일치를 원했던 칼빈의 신앙적 유산을 주제로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 말씀과 성례가 온전히 지켜지는지, 본질적인 교리와 사소한 교리를 구분하여 교회 일치성을 확보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회 일치성의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정일웅 교수는 장로교회가 연합해야 할 이유,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되어야 할 실천신학적인 대의,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한국 장로교가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면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승구 박사님은 성경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며 신정통주의적 입장을 지닌 교단들의 하나 됨을 위한 것, 정통주의적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장로교단들의 하나 됨을 위한 제언을 각각 하시며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개개인이 과연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께 충실한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교단이 제거 되고, 우리의 욕심이 제거 된 그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장로교 연합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장로교공동신앙선언문을 작성

곳에서만 진정한 일치의 길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한국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네 분의 토의 발제가 끝난 후 각 교단의 대표들은 한국 장로교의 실제적 연합과 일치, 장로교 연합의 당위성,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한국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성큼 한 발을 더 떴다. 특히 장로교공동신앙선언문을 작성하자는 의견은 모든 이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500년 전 칼빈은 복음적인 교회의 일치성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사분오열 된 것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칼빈의 신앙 유산이 원동력이 되어 대한민국 온 성도의 염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 한국 장로교의 연합과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자.

편집부 : 허숙 권사

천국시민양성 -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섬김을 본받아

최순정 성도 (1교구)



저는 평촌에서 21년을 살다가 올 봄에 이곳 대치동으로 이사왔고 지난 3월에 서울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딸을 두었고, 남편 문경덕 집사는 저의 13년동안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남편에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질 것

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도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을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음악교육으로 사회활동을 해온 저는 결혼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로 그간 지휘와 대원으로 찬양대를 섬겨왔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서울교회에 제 신앙의 새 터전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고, 새가족부 8주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서울교회 새가족부에 와보니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질서있는 교회 분위기로 서울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제 선택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새가족부 교실입구에서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안내하시는 교사님들, 찬양인도하시는 서희숙 권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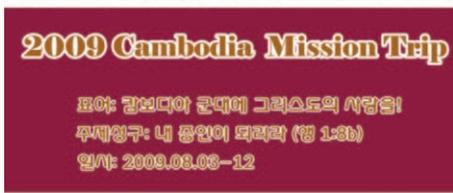
주일마다 새롭고 충만한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리모델링해 주시는 이규정 목사님, 매주일 위트있는 한마디로 웃음을 주시고 새교우를 소개해 주시는 김규태집사님, 수료증을 수여하여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는 임상현장로님, 또 새로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저에게 서울교회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섬겨야 합니다’라는 교회 포어와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교회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이종윤 목사님, 장엄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듣고 싶다면 온 몸이 전율이 느껴집니다. 세심한 교육 하나하나를 정성껏 섬기려는 서울 교회를 보면서 저도 그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권역우 집사
(단기선교팀 단장)



오래 전 이방의 신을 섬기던 가난한 이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앗을 뿌린지 여인 10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믿음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외국선교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민족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빛진 자의 심정으로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종족간의 갈등과 주변국가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2009 Cambodia Mission Trip
 표어: 캄보디아 문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제성구: 내 용인이 되리라 (행 1:8b)
 일기: 2009.08.06-12

우리 단기 선교팀원 29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공동체로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단기선교 여행을 통해 만나게 되는 캄보디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봉사하고 진료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해 캄보디아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에 조그마한 모퉁이들이 되고자 준비하는 우리 단기선교팀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기선교자금 마련을 위하여 7월 19일, 26일 2일간 8층 만나홀 앞에서 운영하는 바자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저녁 특별찬양은 이상화, 이상명 자매의 오르간 연주로 드러진다. 이들은 국제 Sweetinck 오르간 콩쿨, Saam 콩쿨, Fugato콩쿨 등에서 입상 및 우승한바 있으며 독일에서 칸토르로 일하던 이상화와 교회음악가 이상명 자매는 작년에 귀국하여 오르가니스트와 지휘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늘 저녁에는 'Count your Blessing (E. O. Exell)' 의 3곡으로 찬양 드린다.

호산나 학교 승합차 구입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산하의 호산나 학교는 그동안 수업용으로 사용할 버스, 승합차 구입을 위한 바자 등으로 통해 모금한 목적 현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승합차(12인승) 1대를 구입하였다. 이 승합차는 학생들의 외부견학, 방문, 건강검진 등에 사용된다.

도서실 초청의 날

7.20(월)~26(주) 오전10시~오후5시, 102호실

서울교회 도서실(실장:양춘경집사)은 방향을 맞춘 청소년과 성도들을 위해 7월20일(월)부터 26일(주)까지 한 주간 동안 '도서실 초청의 날' 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전까지, 주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좋은 책도 읽고 맛있는 다과도 나누며 무더운 계절을 독서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문의: 010-3135-5053).

고등부 여름수련회 - 초대이글

꼭 참석해야 합니다

이나정 (고등부 회장)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북 단양 느티나무 수련원에서 진행되는 고등부 여름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속에서 진로, 친구, 공부등의 고민을 모두 잊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저녁마다 뜨거운 찬양을 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로와 성적, 친구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있는 고등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2박 3일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고등학생들도 꼭 참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등부가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

을 기다리는 고등학생이라면 절대 빠져선 안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물놀이, 물고기 잡기, 야외 바베큐 파티 등이 있어 시원한 여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은혜의 말씀과 유익한 특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원, 공부, 친구 등의 핑계 때문에 수련회를 갈까 말까 갈등 하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걱정, 고민 모두 내려놓고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고등부 여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월) 우리교회를 부목사로 섬겼던 목사님들의 예방을 받고 목회정보를 교환한다. 21일(화) 장로교의 날 대회 평가회를 갖는다.
- 이사: (5교구) 박태선 집사 군포시 금정동 849-1 무궁화화성@ 122-101 T. 031-387-8904
- 특남: 5교구 정원일 집사 한성연 집사 가정
- 주간식당봉사: 보비전도회(7월19일) 마리아전도회(7월26일)
- 금주의 식사: 손현순 권사(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